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220GW 규모로 대폭 확대”

기후부·전기본, 재생에너지 계획 공개
지난해 보급실적의 6.6배 규모 목표
태양광 155GW, 풍력 61GW 확대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국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20GW(기가와트) 규모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지난해 기준 보급 실적(33.4GW)의 약 6.6배에 달하는 규모로, 태양광은 155GW, 풍력은 61GW까지 늘리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중장기 보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전망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조감도

/중부발전

12차 전기본에 반영될 2040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를 산정한 것이다.

◆태양광 155GW·풍력 61GW 목표… 단계적 인프라 확충

지난해 기준 국내 태양광 및 풍력(육

상·해상) 보급 실적은 총 33.4GW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이를 2030년 100GW, 2035년 163GW를 거쳐 2040년까지 220GW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 보급을 지난해

31GW에서 2040년 155GW까지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시장 잠재량 산출 결과를 바탕으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산업단지와 공장 지붕, 영농형 및 수상형 태양광 등 우수 입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풍력 발전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0.4GW에 불과했던 해상풍력은 2030년 3GW, 2035년 25GW, 2040년 45GW로 단계적 확장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의 발전지구 지정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전용 설치선박(WTIV) 및 지원 항만 등 관련 인프라도 조기 확보할 예정이다.

육상풍력 역시 지난해 2GW에서 2040년 16GW까지 늘린다. 전담 조직을 구성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하고, 노후 설비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리파워링' 사업

도 활성화한다.

◆규제 완화 및 제도 개편으로 시장 활성화 유도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전력 계통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확충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울러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에 맞춘 중장기 입찰 로드맵을 수립하고 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해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별도 추산된 자가용 태양광(2040년 16GW 전망) 확대를 위해서도 자가설비 인증서(REGO) 및 공공기관 K-RE100 도입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호남·용인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 총력

기후부, 금한승 1차관 주재 점검회의
호남권 회의서 기초 조사·설계 등 논의
용인선 통합용수공급사업 현황 점검

정부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고 대규모 기업 투자에 필요한 용수를 적기 공급하기 위해 관계기관 점검에 나섰다. 반도체 생산공정에 용수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용수 인프라 구축 시점을 산단 가동 일정과 맞추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한승 1차관 주재로 26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점검회의를, 27일에는 용인시청에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 점검회의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세정 및 제조 공정 특성상 대규모의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수원 확보부터 관로 및 수도시설 건설까지 막대한 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다수 기관의 인·허가 협조가 얹혀 있어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추진 일정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혀왔다.

26일 호남권 회의에서는 전남광주통합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가물정보 심각단계에 진입한 운문댐(경북 청도) 방문해 댐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가물 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용수공급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기후부

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석해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기초 조사·설계, 인·허가 속도전 및 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7일 열리는 용인 회의에서는 2023년부터 추진해 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경기도, 용인시,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기업의 반도체 제조시설(팹) 가동 시점에 맞춰 용수 공급이 이뤄지도록 인·허가 절차 및 협조 사항

을 윈스톱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주요 반도체 거점의 용수 인프라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해 기업의 투자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1차관은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실제 생산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이 적기에 갖춰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공급되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정유사 ‘전속거래·깜깜이 정산’ 막는다

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정유사와 주유소 간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지목되어온 ‘전속거래(전량구매)’와 ‘깜깜이 사후정산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주유소는 특정 정유사 간만을 달고도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섞어 팔 수 있게 된다. 또 기름을 살 때 정확한 공급 가격을 즉시 알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중동전쟁 등 국제유가 급등 국면에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으로 주유소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윤지로위

원회 중재로 한국주유소협회와 정유 4사(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GS칼텍스)가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공식 표준계약서에 반영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유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주유소라 하더라도 해당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만 구매하면, 나머지 40%는 다른 정유사나 알뜰주유소 공급 제품으로 채울 수 있는 ‘혼합계약’ 가능성이 명시됐다. 그간 정유사들은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전속계약을 관행으로 삼아왔으나, 앞으로는 혼합구매를 이유로 공급가격이나 물량에서 부당한 차별을 둘 수 없다.

수십 년간 이어진 ‘사후정산제’도 사실상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먼저 공급받아 판매한



9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의 영향으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14주 연속 하락한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뒤, 한 달 후 정유사가 정한 월평균가로 정산하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주유소는 자신이 기름을 얼마에 사 오는지도 모른 채 판매가를 설정하는 불확실성을 떠안아야 했다.

개정안은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가격으로 즉시 정산을 확정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무보, 중소·중견 수출길에 3000억 지원

‘산업R&D혁신기업 우대금융’ 선택

정부 연구개발(R&D)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전용 무역금융이 지원된다. R&D 성과가 단순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도록 돕기 위한 맞춤형 금융 마중물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는 R&D 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생 무역금융 상품인 ‘산업R&D 혁신기업 우대금융’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R&D 전담은행인 IB 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총 200억원을 공동 출연하고, 무보가 이를 재원으로 활용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우대 보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무역금융 한도 확대(2~2.5배) ▲보증비용 우대

(90%→100%) ▲보증료 20% 할인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력은 입증됐으나 수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중견기업은 한도는 높이고 금리 부담은 낮춰 해외 진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무보는 정부의 5급 3특(국가균형발전 체계) 및 제조업 AI 전환(M.AX) 정책과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업 등에는 최대 2.5배의 특별 한도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우대금융은 산업통상부, 금융권,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이 협력해 만든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술 경쟁력을 갖춘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상생금융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우리술 품평회’ 18개 수상작 선정

올해 최고의 술 ‘베리와인 1168CS’
수상작 실제 매출·판로확대 연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통령상 등 총 18개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술’에는 충북 영동산 포도로 만든 과실주인 ‘베리와인 1168CS’ (사진)가 뽑혔다.

대통령상을 받은 베리와인 1168CS는 영동에서 재배한 당도 14브릭스 이상의 캠펠리 포도로 만든 알코올 도수 13도의 과실주다. 포도즙과 껍질을 저온에서 접촉시키는 저온침용과 두 차례 발효를 거쳐 원물의 신선한 풍미를 살렸다. 선명한 자주빛과 딸기·꽃 향, 신선한 산도와 탄닌의 균형이 특징이다. 과거 가정에서 빚어 마시던 과실주의 맛을 현대적으로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대상에는 저도탁주 부문 술빚는 전가네의 ‘산정호수 동정춘 막걸리’, 고도탁주 부문 우리첫술의 ‘우리첫술 청설’, 약·청주 부문 내을담의 ‘담 골드’가 선정됐다. 증류주 부문에서는 조은술세종의

‘이도42’, 기타주류 부문에서는 착한농부 예천지점의 ‘복도민취6도’가 각각 대상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수상이 실제 매출과 판로 확대에 이어지도록 18개 수상작의 카탈로그를 제작해 배포한다. 다음 달에는 서울 북촌과 동대문 두터물 전통주 갤러리에서 시음·판매 행사를 열고 주요 유통사 상품기획자와 호텔·외식업체 구매 담당자 등을 초청한 시음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에는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11월에는 우리술 대축제 우선 입점과 국내외 바이어 상담회도 추진한다. 12월에는 수상업체의 해외 주류박람회 참가와 현지 유통현장 견학을 지원한다. 시상식은 11월13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는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